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⑲ 1만ha 수탁영농 '오지마스카이 서비스'

무인헬기로 씨 뿌리고 비료 주고…"농사가 재밌다"

지역농업 살리려 시작 매출 12억엔으로 키워

야마우치 사장

야마우치 다카히코(山內孝彦) 사장(52)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회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돈벌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있어서 한다"고 자주 강조했다. 야마우치 사장은 농가 출신이지만 농업을 공부한 것은 아니다. 기계 만지는 것도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 농업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농업을 살리려면 적은 비용과 생력화(省力化) 그리고 농작업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작업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개별 농가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 전체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농작업의 생력화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헬리콥터(이하 헬기)를 주목하게 되었다.

오지마스카이 서비스 유한회사의 야마우치 다카히코 사장.

야마우치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매출액을 물어보았다. 이 회사의 직접 매출액은 4억 5천만 엔이고 쌀 판매 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12억 엔이라고 대답했다.

오지마스카이 서비스(유한회사)의 활동 거점인 나가다(中田)읍은 미야기(宮城)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이와데(岩手)현과 인접한 지역이다. 지대가 평탄하고 적설량이 적으며 비교적 온난한 내륙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1.4도이고 연간 강수량은 1천㎜ 정도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1천m급의 높은 산을 끼고 있어 농업용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도작 지대로서는 혜택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농가는 2천300호(총세대 수의 54%)로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2006년 2월 22일 모리오카(盛岡)에서 신간선 열차를 타고 구리하라고원역에 도착하니 이 회사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준다. 그는 농협 직원이었으나 이 회사의 농업이 재미있어 2005년에 들어왔다고 한다. 자동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려서 건물이 창고 비슷하게 생긴 회사에 도착했다. .

현재 오지마스카이 서비스 법인은 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농작업이 한창일 때는 인근에서 8대가 모여들어 15대의 헬기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전체로 2천500대의 헬기가 농작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형 트랙터 12대, 범용 콤바인 3대, 범용 건조기 2대, 대두 선별기 1대를 두고 있다. 임시로 고용한 작업원 중에도 헬기 강습을 받아 면허를 소유한 사람이 20명에 이른다.

오지마스카이 서비스사 직원이 무인헬기를 이용해 벼농사 작업을 하고 있다. 무인헬기는 농사일손을 크게 줄여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영농의 규모화'로 저비용 농사

헬기는 한 대 가격이 1천200만 엔(약 9천900만원·28일 현재 1엔 8.26원 환산)이나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회사는 4월부터 9월까지 헬기를 가동하지만 그래도 실제 가동 일수는 100일 정도밖에 안된다. 따라서 자가생산 작업만으로는 채산이 안 맞으며,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수탁해 헬기의 효율화를 기한다. 수탁작업의 대부분은 비료와 농약 살포 작업이다. 수탁요금은 비료와 농약의 살포 작업이 10a당 900엔이고(다른 수탁회사는 1천100엔), 벼농사의 직파작업은 10a당 3천엔이다. 대개 헬기 한 대당 1천ha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채산이 맞지 않는다.

매년 수탁면적이 다르지만 2005년에는 총 수탁면적이 1만ha였고 직영하는 벼농사 면적이 120ha, 직영 콩 재배면적이 240ha에 이르렀다. 10a당 콩 240kg을 생산하면 총 550톤의 콩이 생산된다. 상근직원이 5명이고, 임시 고용은 작업량에 따라 실인수로 71명을 사용한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이앙작업, 제초작업, 추비살포, 방제작업, 수확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다행히 인접한 해안 지역에 굴 양식업 등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농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어업은 비교적 한가하기 때문에 이들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한다. 헬기 도입으로 작업 시간도 벼농사의 경우 미야기현의 평균 시간인 33시간의 약 54%인 17시간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콩 재배에서는 동북지방 평균 26시간의 24%인 6시간 투입으로 모든 생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간이 대폭 절감되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콩은 관내 두부공장에서 지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인정되어 인기리에 팔린다. 또 벼농사용 육묘 상토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콩의 선별 조제 작업도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다.이 회사에서는 직접 생산한 콩과 쌀을 사용해 된장을 만들고 떡 종류도 가공해서 직매장에서 판매한다. 직매장은 관내에 두 곳과 센다이(仙臺)에 한 곳 3개를 열고 있다. 물론 직매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쌀과 콩은 물론 2천평의 하우스에서 생산한 각종 채소류와 가공품 등도 함께 판매한다. 직매장은 이 회사 직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탁농가들이 생산한 채소류를 팔아달라는 주문을 해와 이들 농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직매장의 격전지역이다. 농협의 직매장과 농가의 직영의 직매장을 포함해 모두 12개의 직매장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벼·밀·콩 첨단농법 재배…작업시간 최고 76% 줄여

어업 비수기땐 어민 고용…지역경제에도 크게 공헌

레이저 평탄기 이용 직파재배도

벼농사의 생력화를 위해 1998년부터는 헬기에 의한 직파재배도 하고 있다. 직파작업 수탁은 처음에는 5ha정도였으나 매년 증가해서 지금은 40ha에 이른다. 특히 헬기에 의한 산파(散播)이기 때문에 싹이 제대로 트거나 묘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논 표면의 평탄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이저 평탄기를 빌려 경운작업과 써레질을 한다.

직파재배의 수확량은 포장과 그해의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나 보통 이식재배의 90% 정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2001년부터는 사료용 벼 직파도 시작해서, 2005년의 경우 자작지를 포함 모두 20ha의 사료용 벼 직파 수탁작업을 했다.

이 회사는 벼, 밀, 콩 작업을 대규모로 수탁함으로써 위탁농가의 생력화를 도모하고 농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막아 농산물 생산비가 대폭 절감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각 마을의 단지화된 전작지(轉作地 : 휴경지라고 볼 수 있음)에서의 콩 재배, 건조와 조제 등의 작업을 수탁함으로써 지역의 토지 이용 고도화와 저비용 벼농사 확립에 공헌 하고 있다.

농산물은 가격과 맛에 의해서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자의 노력과 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남미 원산의 스테비아를 사용한 스테비아 쌀과 벌꿀을 사용한 벌꿀쌀도 생산한다. 스테비아 쌀은 스테비아 액을 700~1천 배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주로 엽면 살포를 한다. 맛이 독특하고 밥을 지었을 때 향기가 좋다.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벌꿀 쌀은 써레질할 때 10a당 20kg의 흑설탕을 넣고, 다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10a당 800㎖의 벌꿀을 엽면 살포해서 감농약 재배한 쌀이다. 밥을 지었을 때 독특한 향기가 나며 오랫동안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수탁영농 한국 도입 필요한 때"

오지마스카이 서비스가 하는 농업은 결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니다. 지역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농업은 재미있다는 생각이 일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업을 위탁하는 농가나 수탁하는 회사 모두 농경지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농업은 언제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농민 스스로가 경영하는 대규모 직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야마우치 사장의 희망이라고 한다.

오지마스카이 서비스는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농업을 유지하겠다는 일념과 농업에 대한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대규모 수탁영농을 실현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2001년 일본 쌀 농업 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NHK가 주관하는 일본농업상 천황상을 받았다.

일본과 한국의 농업 여건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농경지의 유휴화가 늘어가는 추세인 우리 한국의 평야 지역에도 쌀, 콩, 밀 등의 윤작재배에 의한 대규모 수탁영농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맴돌았다.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
/eshyun21@naver.com